

도심사찰과 시골 절이 손 잡은 뜻은?

어린이 지도자교육 연수회...교류 지속 위해 '기쁜 만남' 사업 추진

도심 사찰과 농촌(도시벽지) 사찰 간의 연계·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천진불들의 기쁜 만남'(이하 기쁜 만남) 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홍)이 주최한 제45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이 도·농 사찰간 자매결연을 맺고 '기쁜 만남'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 사업에는 부산 흥법사, 진해 대광사, 울산 정토사, 부산 여여사원, 부산 관음사가 도시 사찰로, 강진 무위사, 봉화 관음사가 농촌 사찰로 참여했다. 참여 사찰들은 1:1로 도·농 사찰간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하게 되는데, 시범 사찰로 부산 흥법사와 봉화 관음사, 진해 대

광사와 강진 무위사가 선정됐다. 이 네 곳의 사찰들은 사찰간의 ▲ 정보 교류 및 법회 프로그램 교환 ▲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유(템플스테이 등) ▲ 홈스테이 운영 ▲ 어린이 자매결연 ▲ 지도자간의 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례 발표 및 경과 보고는 제 46차 연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현 스님은 "많은 어린이 지도자들이 어린이들과 여름 캠프나 특별 법회를 병행하기 위해 야외로 나올 경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힘들다는 문제를 제기하곤 해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석처럼 값지고 빛나는 여름불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어린이 지도자 500여명이 '재미'와 '신심(信心)'

이라는 테마의 체험 활동, 어린이 지도자를 위한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에서 진행된 체험 활동은 대나무 물총 만들기, 명상, 합장주 만들기, 단체 놀이기, 화채 만들기 등으로 모두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법회 및 불교학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어린이 법회의 의의와 목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집중 손유희', '마음을 다스리는 동화 치료' 등 11개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강의는 참석한 어린이 지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중앙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강의를 통해 "아이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는 부모의 마음처럼 어린이 지도자들에게 아이



6월 8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제45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에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은 도·농 사찰간 1대1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사찰간 연계·교류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록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듯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린이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자부심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청주 보현사 |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

청주 율령동에 위치한 보현사 부설 종교법인 '보리수 어린이집(원장 성낙준)'과 사회복지법인 장애전담 '보현 어린이집(원장 최유진)'의 보금자리인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

평소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불심을 심어주자'는 뜻을 가진 원봉 스님의 보살핌으로 보현사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보리수 어린이 집'과 '보현 어린이 집'의 아이들은 절을 방문하며 생활 속에서 불교를 익히고 있다.

책상 앞에 앉혀 두고 불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 오계'를

살도록 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짧은 사찰 방문이 끝나면 이내 보현사 대웅전은 고요해진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녀가는 날이면 그 고요함은 더욱 커진다고. 보현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원봉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고, 그곳 절에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 절을 유치원 어린이들의 쉼터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일사일원(一寺一園) 즉, 한 개의 사찰에 한 개의 유치원 또는 유아원이 정비돼 있다. 사찰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사찰재



보리수·보현 어린이집 아이들 쉼터

일상생활 속 불교 실천 교육에 힘 써

생활화 하고, 스님들께 합장하며 인사하는 등 말 그대로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것. 6월 13일 보현사를 찾았을 때도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날 방문한 아이들은 '보리수 어린이 집' 6~7세반 아이들로 약 40여명 정도였다. 이미 여러 번 보현사를 찾았던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는 모습이 제법 의젓하다.

원봉 스님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며 "4~11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불교를 접한다면 은연중에 불교 예절이 몸에 익을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다"며 "특히 불교의 교리는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돼 올바른 인생을

정을 충당하고, 맞바탕이 부부들은 믿음직스러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 여기서 원봉 스님은 '아, 이것 이구나'라고 생각해 보현사 부설 유치원과 유아원의 쉼터·놀이터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

그러나 생각처럼 어린이 포교가 쉽지는 않았다. 처음 유치원을 개설했을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사찰을 방문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놀이터를 찾듯이 절에 오고 있다.

원봉 스님은 앞으로도 보현사는 어린이들에게 모든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 한다. 곧 '보현장 학재단'도 설립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스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마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손효선 기자

'쇠고기 재협상' 촉구 시국선언

충북 종교계 인사 48명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6월 10일 청주 명암교회에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충북 종교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50여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쇠고기 고시철회와 전면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포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화려한 수사를 갖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허탈과 분노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인식

하고 쇠고기 정부 고시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교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는 6.10 항쟁의 교훈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며 "특권층을 위한 정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청주·청원 조계종주지회의회 설곡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16명, 기독교장로회 김창경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인사 27명, 모종동성당 이수환 주임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인사 5명 등 모두 48명의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손효선 기자

전통사찰 4곳 문화재 보수

천안시가 지역 문화재에 대해 약 5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에 들어갈 것임을 6월 3일 밝혔다. 천안시는 전통사찰 4곳을 포함해 국가지정 문화재 1점, 도지정 문화재 2점, 향토유적 1점 등 총 8점

(곳)을 선정하고, 6월부터 문화재 보수와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포함된 전통 사찰은 ▲ 광덕사(제246호) 자광당 ▲ 만일사(제250호)는 산신각 및 요사채 ▲ 성불사(제10호)는 적묵당 단청 ▲ 은적사(제 55호) 대웅전 해체 보수 등이다.

손효선 기자

"5계 품고 병영생활"

논산훈련소 장병 수계법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6월 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수계했다. 명성 스님은 이날 2000여 훈련병들에게 "늘 5계를 가슴속에 담고 제대할 때 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비구니회 부회장 일법, 섭의부장 혜성스님, 사서실장 진광, 동학사 확장 해주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 학인스님 40여명이 참석해 장병들에게 연 비했다.

〈사진=손법현 대구지사장〉



관세청 직원들 자원봉사

짜퉁의류 등 대전 서구노인복지회관 전달

허용석 관세청장을 비롯한 관세청 사랑동우회 회원 20여명은 6월 9일 점심시간을 이용, 대전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장곡)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인 320여명에게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날 허용석 관세청장은 세관에

서 입수된 짜퉁(점퍼) 300벌과 20kg 쌀 20포대,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점심식사 봉사에 참여했다.

전달된 의류는 최근 인천세관에서 입수한 명품 짜퉁의류로 검사지휘 및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

가 제거된 제품들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소각 처리되는 짜퉁 의류를 뜻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상의해 꾸준히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곡 스님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오늘처럼 후원이 봉사자 꾸준히 이어져 복지사업들이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 2007년 9월 16 ~ 27일 (10일)
- 장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권,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앤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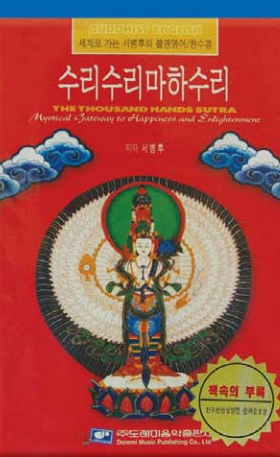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를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